

보 도 자 료

KCGI,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 “글로벌 부문” 신설과 신임 부문 대표 영입

㈜ 케이씨지아이 (이하 “KCGI”)는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과 “글로벌 부문”을 신규사업부문으로 신설하고, 각각 이대식 대표와 이승훈 대표의 선임을 확정하여 근일내 합류를 예정하고 있다.

2018년도에 한진칼, 한진 및 이노와이어리스의 투자로 한국 금융시장에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화두를 제기한 KCGI는, 승계 부문과 글로벌 부문의 추가로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련 투자의 3대축을 완결하여, 올해에도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 (이하 “승계부문” 또는 “SSG”)은 기업의 성공적인 승계(Successful Succession)와 특수상황(Special Situation)에서, 주주와 기업은 물론 경영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 공동의 문제해결(Successful Solution)에서 발생하는 투자기회를 추구한다.

KCGI가 추구하는 기업승계 투자는 경영권승계와 상속의 이슈는 물론 계열분리, 주주간의 변동, 브랜드와 ESG 등 무형의 가치 유지,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의 재편과 조정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영승계 관련 이슈의 해결방안 제시와 이를 통한 투자기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의 글로벌 대기업에서부터 골목 가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자의 공통적인 고민인 승계의 문제에 대한 시장의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 승계관점에서 진행한 첫번째 투자대상회사는 지분 18.57%(CB 전환시 27.46%)를 인수하여 투자한 이노와이어리스이며 투자 이후 1분기 흑자전환에 이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가측면에서 7개월 동안 약 52%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KCGI가 추구하는 특수상황 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특수상황 이외에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중간 조정, 법률 제도 또는 시장 이벤트에 의한 기업가치 변동과정에서의 투자를 수행할 것이다.

이대식 대표는 22년의 금융경력을 바탕으로 구조화 투자와 아시아 지역 투자에 강점을 보유한 사모펀드 전문가이다. 미국 사모펀드인 Colony Capital의 아시아 투자 담당자로서 7년간 아시아지역의 Special Situation 및 Distressed Asset 투자를 수행했으며, 벤처캐피탈과 은행의 심사역,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를 거치는 등 분석가 경험에 따른 산업이해도가 높으며, 하나금융투자 등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PEF운용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역임하여, 기업의 모든 성장단계별 금융에서 경영진의 지분 매각후 과정까지의 과정과 단계별로 경영자와 기업의 필요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과학고와 KAIST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금속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수학한 이공계 출신 금융인이다.

글로벌 부문은 향후 신규 해외투자기관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상대로 투자자유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한국기업을 상대로 ESG 요소를 고려하는 펀드의 신규 설정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융투자를 주도하는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패밀리 오피스들과 각 나라의 국부펀드 및 연기금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향후 투자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와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같은 주주권 행사 권유 기관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연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글로벌 부문을 맡게 된 **이승훈 대표**는 2004년 3월말에 미국 JP Morgan 증권회사의 한국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며 아시아머니에서 한국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며 활동하던 중에, SK그룹의 구조조정본부에서 재무개선3팀장 및 IR임원으로 영입되어, 당시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분쟁 극복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05년 3월 초 정기주총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안에 대하여 해외기관투자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캐피탈그룹 (Capital Group) 소유 7.3% 지분에 대하여 100% 찬성을 도출한 일은 당시 SK그룹 내외에서 크게 회자된 바 있다. 이러한 정기주총의 성공에 따라 소버린 자산운용은 당시 14.8% 지분을 2005년 6월말 전량 매도하고 한국 시장을 Exit하게 된다.

또한, SK그룹의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며, 2005년 5월 당시 SK생명의 100%지분을 노조 등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아무런 마찰이나 소요 없이, 미래에셋그룹에 무난하게 매각하여 당시 채권단에 담보로 잡혀 있던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회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SK그룹내에서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지주회사구조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모두 증대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후 구조조정본부의 후신인 그룹 지주회사에서 글로벌 신규 성장을 위한 M&A기회 발굴 및 실행을 하는 G&G 부문장(Growth & Globalization) 역임하며, 중요한 M&A 기회를 제시하였는데, 2007년 여름 당시 하이닉스 경영권 인수안을 최태원 회장에게 최초로 보고한 바 있고, 2008년 미국의 샌디스크(Sandisk)사를 인수하는 기획안, 그리고 2009년 봄에 반도체설계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설계의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는 영국의 ARM사의 100% 인수 기획안을 최태원 회장에게 제안 보고했던 사안은 당시 해외 IB업계에서도 탁월한 예지적 M&A 기획들로 크게 인정받은 바 있다. 참고로 ARM사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주도로 2016년 가을 100% 인수된다.

이승훈 대표는 오랜 미국 유학에서 귀국 후 Barclays, Morgan Stanley에서 은행담당 Research Analyst로 활동하였으며, UBS서울지점에서 리서치센터장 및 시장전략가로 또한 JP Morgan 서울지점에서는 Research 센터장 및 주식부문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양사의 리서치팀을 한국 최고로 Asiamoney지와 Institutional Investor지에 선정되는데 주도적 역할은 하였다.

이승훈 대표는 서울대학교 인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취득 및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경제학 석사 취득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본 자료는 이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기술적 오류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보 제공 후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정확도, 완성도,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 본 자료에서 최신의 내용을 유지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귀하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상의 참고자료로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손실, 손해(간접, 특별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 등은 할 수 없습니다.